

기술력만큼 인정받은 중소기업의 안전 서울정밀의 제안제도!



1. 제안제도의 개요_ 제안제도

는 89년 이전부터 품질에 대한 제안제도로 시작하여 90년 초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안전분야로까지 확대 적용된 서울정밀의 가장 오래된 제도이다.

2. 도입 배경_ 서울정밀은 자동

차 변속기의 각종 기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중량물 취급시 근골격계질환 위험을 비롯해 CNC 드릴가공에 따른 말림, 협착재해 위험, CO₂ 용접작업에 따른 유해광선 및 흡에 노출될 위험, 연마작업시 칩 비산에 따른 상해 위험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작업시작전·중·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이 필요하였고, 15년 이전부터 시행해온 제안제도에 안전분야를 도입하여 서울정밀만의 독자적 제안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3. 제안제도 시행_ 서울정밀에

는 크게 3개 라인이 운영되고 있다.

각 라인에는 여러 팀이 운영되어 작업이 진행되는데, 제안제도는 팀별 근로자 각자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팀장에게 제안되면, 제안된 안전을 가지고 팀장회의를 거쳐 시정 가능한 것은 팀 자체적으로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는 관리부에 보고된다. 그러나 자체 개선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에 보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이클이 서울정밀에서 시행되는 제안제도이다.

근로자 스스로 참여하는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전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느 일부 근로자가 아닌 참여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포상을 실시한다.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에 급급해 하는 어느 중소기업모사업장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03년,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생산하면서 선진 자동차 생산국 대열에 들어섰다.

자동차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금속, 기계, 전기, 전자 등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다. 오늘 찾은 곳은 기계부분에서 기술력이 소문난 주식회사 서울정밀이다. 미국 Rockwell사로부터 '최우수 협력업체상'을 수상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서울정밀은 중소기업으로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우수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여기에 "제안제도"를 소개코자 한다.

그러나 차등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상무이사, 품질부서장, 공무부 등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사항의 창의성, 제안을 위한 노력 및 연구, 제안효과의 지속성, 제도 개선 정도에 따라 100 이상은 특급, 최하점수 범위의 장려상 등급 외에 18등급으로 설정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4. 실적 제안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지속성에 있다. 15년 이상을 지속해온 제안제도는 이것만으로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제안사항 도출건수에서도 월별 차이는 있으나 월평균 10여건의 제안사항이 제출된다. 서울정밀 전체근로자가 102명임을 볼 때 매월 10%의 근로자가 제안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1년이면 모든 근로자가 참여한다.


제안제도의 효과는 이 밖에도 모두가 참여하는 제도로 근로자 개개인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시켰다. 뿐만아니라 직장분위기도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성향이 짙어지면서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5. 맺음말 안전한 중소 사업장에는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지만 무엇보다 경영층의 안전 마인드가 없다면 유명무실의 안전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서울정밀에도 안전은 곧 생산성임을 강조하며, 안전교육 등 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형구 사장과 일상의 안전과 안전의 생활화를 중요시 여기는 김용세 상무와 같은 경영층이 있기에 오랜 기간 동안 제안제도를 지속시켜 왔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이다.

올 상반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기계기구를 안전장치가 구비된 설비로 교체하는 등 보다 안전한 서울정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정밀만의 제안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월 단



위 행사에서 머물지 않고 연말에 최다 제안상, 최우수 제안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최종덕 기자〉